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의 하루 / 박기린

나는 충남 당진에서 3세 딸아이를 키우며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로 지내고 있다. 5월 12일은 당진 원당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기로 했다. 아침 8시 반에 함께 교육가는 강사들과 만나기로 하여 아침을 서둘렀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평소엔 어린이집에 오전 10시경에 보냈는데 교육이 예정되어 있을 때면 일찍 맡기기도 하였다. 아이가 비몽사몽 잠에 취해 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평소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교육이 있는 날은 직장에 다녔을 때처럼 곱게 치장을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곤히 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한 번 푹 쉬었다. 8시 20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갔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전 아이를 깨워 급히 뽀뽀를 하곤 서둘러 나왔다. 미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진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강사들과 승합차를 타고 학교로 갔다. 교무실에 가서 내가 교육할 반을 배정받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이 교육 후에 영어시험을 볼 예정이라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당부였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생들이 고단할 거란 예상했다. 또 몇은 시험 준비에 교육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교육은 9시부터 45분 이루어졌다. 10분 전에 교실로 가서 강의 준비를 했다. 컴퓨터가 없는 학급이라 다시 교무실로 가 선생님께 협조를 구했다. 교육에 앞서 USB에 담긴 교육 자료와 게임을 옮겼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착석하였다. 준비한 게임은 '숫자 맞추기'였다. 컴퓨터 화면에 순식간에 숫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맞추는 간단한 게임이었다. 게임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느낌이 들었다. 점점 더 속도가 높아지는 게임의 속도가 나에 대한 집중도도 함께 높였다.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역시 무척 지쳐 보이는 모습이였다. 한, 두 명은 시험공부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 얘기하려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학생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말해볼까요? 똑같은 것 말해도 되고요. 패스 있어요. 앞에 친구가 패스하면 다음 친구는 패스 못해요.”

학생들은 '돕는 것', '좋은 일', '사랑', '희생' 등등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를 하며 탄탄해진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말하였다. 학생들이 내 딸과 내가 만난 몽골의 어린이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자 조금 웅성거렸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 '노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늙는 것이 아니다.'란 말도 해주었다. 자원봉사대상자들은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고.

지난 교육과 달라진 점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며 연봉이 올랐던 경험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성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단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진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기성세대로서 반성했던 점과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진 것도 전했다.

교육을 마치고 다른 강사들과 간단히 소감을 나누었다. 45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학생들 수업태도가 특별히 좋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내가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자 그에 동조하거나 최근 관련 이슈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자원봉사를 하며 확실히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겼다는 느낌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며 지내면 좋겠다.

봉사를 마치고 아이를 만나러 어린이집으로 갔다. 귀가하기 전, 이웃에 들러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이웃 언니가 깔깔거리며 웃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아이와 이웃 아이가 함께 이불에 누워 있었다. 이웃 언니의 아이는 아들이고 우

리 아이는 딸이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청소년들을 만날 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평소엔 그런 사소한 행복을 즐기며 산다. 저녁을 차리기 위해 간단히 장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온단 남편의 말이 었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청소를 하고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했다. 요리 실력이 그리 훌륭 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음식이 나와 만족했다. 남편도 잘 먹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그저 이렇게 가끔 봉사를 하며 사회활동을 못 할 것 같다. 그래도 지금의 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편이라 생각한다. 첨부한 사진은 내가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자료 중 일부이다. 2011년 몽골로 봉사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과 우리 딸이 똑같이 예뻐서 소개 한 사진이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사회에 공헌하며 살고 싶다.